

드라마 속 혁신가전 공간 현실로 아태 B2B·빌트인 시장 동시 공략

LG이노페스트 아시아·태평양

25인치 워시타워 신제품 공개
히트펌프 건조기 라인업 소개
아태 지역 맞춤형 냉장고 선보

LG전자가 워시타워·워시콤보 등 혁신 가전과 UP가전·구독과 같은 서비스로 완성되는 'K-라이프스타일'을 앞세워 글로벌 사우스 최대 시장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략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오는 10일까지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20여 개국 주요 유통 거래선과 언론을 초청해 신제품과 사업 전략을 소개하는 'LG 이노페스트 2026 아시아태평양'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진행된 중동·아프리카와 중남미에 이어 올해 이노페스트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가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아태지역은 약 44억 명(중동 및 중앙 아시아 제외) 인구를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 최대 시장이다. LG전자는 이러한 핵심 시장의 중요성을 반영해 올해 열린 이노페스트 중 최대 규모 전시관을 마련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드라마 속 공간을 모티브로 전시장을 꾸며



관람객들이 'LG 이노페스트 2026 아시아태평양(LG InnoFest 2026 APAC)' 현장에서 신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LG전자

참석자들이 K-라이프스타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제품 중에서는 한국의 프리미엄 주거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 가전으로 '워시타워' 신제품이 이목을 끌었다. 워시타워는 세탁기와 건조기의 일체형 타워 설계로 공간의 효율성은 물론 심미성까지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24·27인치 모델과 함께 25인치 워시타워 신제품이 새롭게 공개됐다. 이처럼 크기 라인업을 세분화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는 한편, 세탁·건조 용량을 늘리고 LCD를 적용하는 등 편의성도 업그레이드해 글로벌 누적 판매 320만 대를 돌파한 흥행 돌풍을 아태지역에서

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LG전자는 시장 내 ESG 트렌드 확산에 발맞춰 업계 최고 에너지 효율을 갖춘 히트펌프 건조기 라인업도 새롭게 선보였다.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워시콤보'는 물론, 세분화된 용량과 기능을 탑재한 건조기 모델들로 고효율 가전 시장에서 브랜드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다진다.

아태지역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맞춤형 냉장고 라인업도 대거 공개했다. ▲무더운 동남아 기후를 반영해 4가지 종류의 얼음을 제공하는 얼음정수기 냉장고 ▲용도에 맞춰 냉장·냉동 모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컨버터블 냉장고 ▲벽과의 틈새를 최소화해 깔끔한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공간을 동시에 구현한 핏앤맥스 냉장고 등이 대표적이다.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태지역 B2B 및 빌트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1시간 내 세척과 건조를 끝내는 식기세척기 ▲카메라로 재료를 식별해 레시피를 추천하는 오븐 ▲아일랜드 조리대와 일체형으로 설치돼 디자인과 기능을 모두 강화한 다운드래프트 후드 ▲상업용 세탁가전 솔루션 등도 전시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가전업계 실적 희비... 삼성 '주춤' LG '선방'

관세부담·수요둔화... 수익성 적신호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가전 사업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양사 모두 관세 부담과 수요 둔화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은 채 수익성 방어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1분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가전(VD·DA) 사업부는 적자 또는 소규모 흑자 수준에 머물며 실적 회복 속도가 더뎠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LG전자는 1분기 연결 기준 실적이 매출 23조 7330억원, 영업이익 1조 67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 32.9% 증가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외연 확장을 이룬 모습이다.

삼성전자의 TV·가전을 담당하는 VD사업부와 생활가전(DA)사업부는 전 분기 약 6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는데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 속에서 수익성 회복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DA·VD 부문이 AI 가전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며 얼마나 빠르게 실적을 개선할 수 있을지가 전사 수익 기반을 좌우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LG전자는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S

사업본부가 구독 가전 확대와 프리미엄 제품 중심 전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HS 사업본부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7000억~80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안팎 성장이 예상된다. 생산지 최적화와 판가 조정으로 관세 부담에 대응하는 한편, 가전 수요 둔화 속에서도 AI 가전 라인업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LG전자의 TV사업을 담당하는 MS 사업본부 역시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MS사업본부는 TV수요 정체와 시장 경쟁 심화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연간 7509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인력 효율화에 따른 고정비 감축과 광고·콘텐츠 사업 성장 등이 맞물리며 수익성 개선의 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사의 희비가 엇갈린 성적표에도 대외 환경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공통으로 지적된다. 가전업계는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 가능성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이어지면서 올해 사업 환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전 시장은 수요 둔화와 비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이라며 "결국 비용 통제와 제품 믹스 개선을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실적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D현대중, 세계최초 암모니아 추진선 건조

중형 가스운반선 2척 명명식

HD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가스운반선 건조에 성공했다.

HD현대중공업은 9일 울산조선소에서 암모니아 추진이 가능한 이중연료(D/F) 엔진을 탑재한 중형 가스운반선 2척의 명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안트베르펜(ANTWERPEN)'과 '아를롱(ARLON)'으로 명명됐다.

이들 선박은 길이 190m, 너비 30.4m, 높이 18.8m 규모다. HD현대중공업이 자체 기술로 설계·제작한 화물창 3기를 탑재해 암모니아와 LPG 등 액화가스 화물을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다.

또 추진엔진 회전축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축발전기(Shaft Generator)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적용해 친환경성을 강화했다. 암모니아 누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세계 최초의 중형 가스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HD현대

출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장치와 배출 회수 시스템 등 방재 기술도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해당 선박에는 스위스 엔진업체 윈지디(WinGD)가 세계 최초로 개발·시험한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이 적용됐다. 해당 엔진은 지난 1월 HD현대중공업 엔진기술센터에서 형식승인시험(TAT)과 공장인수시험(FAT)을 거쳐 상업 운항 가능성을 입증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삼성, 사람 중심 제품설계... "일상경험 개선"

S26·버즈4 시리즈 개발 과정 소개
기술·데이터 기반 사용자 경험 설계

"갤럭시는 기술도, 감성을 담은 디자인도 언제나 사람 중심이다. 첨단 기술이 담긴 제품이지만 편안하고 부드러운 감성을 더해 소비자의 일상에 함께하는 디자인을 추구한다."

이일환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자인 팀장 부사장은 9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열린 갤럭시S26시리즈와 갤럭시 버즈4시리즈 디자인 콘셉트 및 개발 과정을 소개하는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경험을 보다 자연스럽게 정교하게 설계한 '사람 중심 디자인'을 강조한 것이다.

이지영 MX사업부 디자인팀 상무는 갤럭시S6 디자인을 두고 "갤럭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첫인상에서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느껴지고, 손에 쥐고 사용할 때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기술의 가치를 소비자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갤럭시S26 울트라 디자인은 외형 통일성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S25 울트라까지는 S25와 S25플러스와는 다른 모서리 곡률이었으나 S26 울트라에서는 S26과 S26 플러스와 같은 곡률을 적용했다. 이로써 S26시리즈는 3개 모델의 외곽 실루엣을 갖춘



이일환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자인팀장 부사장이 갤럭시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으로서 '모든한 조형에 감성을 담은 디자인'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최초의 S시리즈로, 강력해진 S시리즈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확립했다.

이 상무는 "갤럭시다운 인사와 편안한 그림감, 전체 조형의 균형을 모두 고려해 최적의 모서리 곡률인 7R(Radius)을 도출했다"며 "이는 모서리뿐 아니라 S펜 팀도 비례적으로 곡률을 맞춰 7R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S26시리즈는 더 얇고 가벼운 제품으로 완성하면서도 카메라가 주는 시각적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제품은 얇아지고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해서 생긴 바디와 카메라 간의 시각적 단차를 줄이기 위해 카메라 주변을 살짝 돌출시킨 영역인 카메라 섬(Island)을 적용했다.

갤럭시S26 울트라 소재를 티타늄에서 알루미늄으로 바꾼 질문에 대해서 이 상무는 "원매스 구현을 위한 일체감

과 프리미엄 가치, 내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갤럭시 버즈4에 대한 착용감 중심 설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송준용 MX사업부 디자인팀 그룹장은 "웨어러블에서 착용감은 편안함 뿐만 아니라 성능의 문제"라며 "특히 이번 버즈4는 고음질 사운드 경험이 중요한 제품인 만큼 착용감이 가장 큰 우선순위를 뒀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부터 미국 미시간 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확보한 전 세계 1억 개 이상의 귀형상 데이터와 1만 회 이상의 착용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인체공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버즈4의 착용감을 정교하게 설계했다.

블레이드 디자인 도입 배경을 묻는 말에 송 그룹장은 "사용성과 착용감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더 편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시리즈의 정품 케이스 최초로 마그넷이 적용된 다양한 케이스와 ▲마그넷 무선 충전기 ▲마그넷 스탠드 카드 월렛 ▲듀얼 마그넷 링홀더 ▲마그넷 미러 그립 스탠드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선보였다.

또 버즈4시리즈는 ▲전통 문양 시리즈 ▲통조림 시리즈 ▲레트로 게임기 시리즈 등 다양한 '갤럭시 버즈4시리즈' 케이스를 출시하며, 이와 함께 ▲헬릭스 러기드 ▲초코송이 등 이색 콜라보 케이스도 선보였다. /차현정 기자

한화에어로-인드라그룹, 장갑차 사업 MOU

중남미 지상방산 시장 공략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스페인 방산 기업 인드라 그룹과 손잡고 중남미 지상방산 시장 공략에 나선다. 칠레 장갑차 사업을 시작으로 플랫폼과 임무 체계를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앞세워 중남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8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국제항공우주 박람회 'FIDAE 2026'에서 인드라 그룹

과 칠레 장갑차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칠레 장갑차 현대화 사업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타이곤 차륜형 장갑차 등 지상 플랫폼을 공급하고 인드라 그룹은 통신과 상황인식, 지휘통제 등 임무 체계 장비를 맡는다. 인드라 그룹은 중남미 지역 사업 조율과 현지 네트워킹 지원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